

## 전후 후쿠오카 미완성 프로젝트의 판타스마고리아

(\* 판타스마고리아: 프랑스 어원, 눈앞을 스쳐가는 환영 혹은 환상적인 광경을 일컬음)

구로다 레이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서울과 부산의 관계를 도쿄와 후쿠오카에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부산의 역할은 일본 내 경제나 문화, 또한 인구 측면에서도 오사카나 교토가 적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전후 일본 문화의 역사를 다시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후쿠오카는 도쿄의 서쪽으로부터 900km 떨어져 있으며 초고속 열차로 5 시간, 비행기로 1 시간 반이 소요된다. 대체로 후쿠오카 사람들은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축제 문화와 최신 유행 패션에 민감하다. 후쿠오카는 많은 일본 내 유명 연예인과 음악가들의 고향이기도 한데, 나의 도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쉬이 달아오르지만 그러한 감정을 지속하거나 간직하는 데에는 소질이 없는 극소수 순수 예술가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거대한 규모의 철강 산업으로 큐슈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 온 이웃 도시 키타(北)큐슈에 비하면, 후쿠오카는 상업과 서비스업의 도시이면서도 생산보다 소비의 도시이다. 최신 패션과 소비에 대한 기호는 머나먼 고대로부터의 것들을 제외한 문화유산들로부터 발생하는 모순 속의 또다른 측면이다. 후쿠오카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 및 지정학적 위치는 다른 주요 도시—그 역시 후쿠오카의 문화적 상황을 형성하는—출신자들과 달라 보일 수 있는 후쿠오카인만의 성향을 형성한 바 있다.

단순하게 보면, 근대 후쿠오카 문화의 역사는 두 가지 자극 사이의 딜레마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하나는 기존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또다른 중심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반대되는 진로들이 어떠한 문화적 또는 철학적인 실체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 다만 자신의 모자란 점을 채우는 데 언제나 실패하고 판타스마고리아 속으로 추락하고 마는 보다 가상의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본인은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되기에 매우 유익할 수 있는 주제, 후쿠오카에서 창시되고 발전되어 온 중요한 예술 활동의 3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그룹 큐슈·하. 아방가르드 아티스트 공동체로서 1960 년경 전후 일본의 국가 예술사를 기록한 바 있다. 두번째는 1990 년대의 공공 예술 프로젝트인 박물관 도시 (Museum City) 프로젝트 실행건이며, 세번째는 세계 어느 나라와 도시들보다도 일찍 시작되었던 아시안 컨템포러리 아트 박람회이다. 이 모든 프로젝트들은 집중화와 분산화의 기로에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인 후쿠오카 문화인들의 야망을 보여줄 것이다.

## The Phantasmagoria of Unfinished Projects in Postwar Fukuoka

Kuroda Raiji, Fukuoka Asian Art Museum

It is not appropriate to compare the relation of Seoul- Busan with that of Tokyo- Fukuoka, as Osaka or Kyoto should take the position of Busan in terms of population, economy or culture in national map. However it might be an interesting attempt to re-map cultural history of postwar Japan in this perspective.

Fukuoka is 900km west of Tokyo, now 5 hours by bullet train and 1,5 hour by air. Generally people in Fukuoka are said to be characterized as being open-minded, loving festivals and new fashion, it is a hometown of many nationally popular entertainers and musicians, but of very few serious artists in high-art, easy to heat up and bad at maintaining or preserving, in my personal observation as Tokyoite. In contrast to its neighboring city, Kitakyushu which used to be a center of Kyushu with its huge steel industry, Fukuoka is a city of commerce and service industry, city of consumption rather than production. This fondness for the new fashion and consumption is another side of its lack in cultural heritage, except those in ancient times. This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geographical location have formed a mentality particular to Fukuoka, which may be different from people in other major local cities, and that also forms its present cultural situation. Put simply, cultural history of modern Fukuoka is marked by a dilemma between two incentives – one is toward the existing center, the other is to take over the position of another center. What is important is the both opposite vectors do not have any cultural or philosophical substantial, but something more imaginary, always failing to develop its marginality then falling into phantasmagoria, if I borrow the term give to this session.

I will introduce here three examples of important art movements initiated and developed in Fukuoka, which may be instructive to argue the issue of this symposium. One is Group Kyushu-ha, avant-garde artists collective which is recorded in the national art history of postwar Japan around 1960, second, practices of Museum City Project, public art project in 1990s, third, exhibitions of Asian contemporary art which started much earlier than any other cities in the world. All of these three projects can illustrate the ambition of cultural people in Fukuoka charged with complex feeling betwee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